

삼성 오너가 워싱턴 집결... ‘이건희 컬렉션’ 한미교류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회 마무리
美 정부 관계자, 기업 경영진 등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가(家)가 ‘이건희 컬렉션’ 첫 해외 순회 전시 폐막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하워드 러트니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 인사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 등이 모두 참석하며 국격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삼성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에서 진행 중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기증품 해외 순회전의 첫 번째 전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개최해 오는 2월 1일까지 일반에 공개 중이다.

스미스소니언 갈라 디너에는 러트니



이재용 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갈라 디너에서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부 장관을 포함해 미국 정·관계 인사, 글로벌 기업 경영진, 문화계 인사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관계에서는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부 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 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세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웬델 워스 코닝 회장,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CEO, 누바 아페안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CEO,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 등이 함께 했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및 이 회장의 딸인 이원주씨, 이부진 사장의 아들 임동현군 등이 참석했다.

전영현 삼성전자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DX부문장 사장 등 삼성의 주요 사장단도 자리에 참석자들을 맞았다.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명예관장은 귀빈들에게 이건희 선대회장이 강조했던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미술품 기증의 토대가 된 사회공헌 철학을 소개했다.

갈라 디너 참석자들은 전시회 관람 후 만찬을 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품격을 체험하고 한국측 인사들과 교류하는 등 한미 우호관계를 다졌다. 만찬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조수미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정누리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임직원 복꾸러미 기탁

BNK경남은행은 ‘2026년 설날맞이 사랑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특례시에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복꾸러미를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M금융그룹-경북대, 평생교육 활성화 협약

M금융그룹 M사회공헌재단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디지털 신기술 금융채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용필 M금융지주 그룹가치경영총괄 전무(왼쪽)와 정종철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금융



현대차 임직원들이 H-안전체험관 기공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현대차, ‘H-안전체험관’ 첫 삽

연간 2만명 몰입형 안전교육 제공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몰입형 안전 체험관의 첫 삽을 떴다.

현대차는 지난 28일 울산공장에서 노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에 설립될 연면적 280평 규모의 안전 미디어 체험관이다.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는 물론, 국내 안전 체험관 중 처음으로 울산공장의 실제 생산 현장과 위험

상황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생생히 구현할 예정이다.

프로젝션 맵핑은 물리적 사물에 빛을 투영해 본래의 형태와 다른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기법이다.

방문객은 ▲웰컴존 ▲세이프티존 ▲교통안전존 ▲사고체험존 ▲위험성평가존 ▲감성안전존 등 6개 구역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전 사고 콘텐츠를 체험해 안전 의식 내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 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최진식 “韓·中 호혜적 경제성장 견인”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련,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중견기업계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호혜적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질·인적 왕래가 끊기지 않는 폭넓은 소통과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8일 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 초청 중견기업 만찬 간담회’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견련에선 최진식 회장(사진)을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최명배 와이씨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등 수석부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국은 중견기업의 최대 교역국이자 거대 소비 시장, 핵심 원자재 공급처로,



기존의 우호적 ‘딴시’(관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첨단 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부문의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호혜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중 정상의 각별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류와 교역 회복의 불가역적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 기업인들은 이달 초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업무협약의 실질적인 성과가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통해 통상 균형을 회복하고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 통제 대화체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칠성음료, 페트병 자원순환 앞장

롯데칠성음료는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립공원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성식 롯데칠성음료 안전품질부문장(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홈앤쇼핑, ‘아름다운가게’ 물품 전달

홈앤쇼핑은 서울 중구 아름다운가게 명동점에 2억6000만원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홈앤쇼핑과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뜻을 함께 나눴다.

/홈앤쇼핑

LG전자,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영상 공개

다양한 고객의 가전사용 모습 담아

지난 12일 LG전자가 나이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기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1분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시각장애가 있는 어린이’, ‘요리가 서툰 할아버지’ 등 다양한 고객이 LG전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가전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번 영상은 장애인, 시니어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공개 2주 만에 조회수 100만회에 육박하



‘모두를 위한 모두의 LG’ 캠페인 영상 갈무리. /LG전자

는 등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시니어 고객 등이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소개하고 있다. 이때까지 공개된 영상은 총 23편에 달한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